



# 에히메 결혼지원센터 “아이무스비”의 빅데이터 활용



## 상황

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미혼화·만혼화 대책으로서 적당한 상대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신을 선택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혼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, 운용상 데이터가 연간 50만 건씩 축적돼 왔다. 2014년도에 이러한 데이터를 “빅데이터”로서 분석해 만남에서 교제나 결혼으로 발전할 가능성의 향상을 꾀했다.

## 내용

결혼 지원 시스템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

- ① 한 남성 A 씨가 한 여성 B 씨에게 맞선 신청을 한다.
- ② 과거 B 씨에게 맞선 신청한 남성군의 행동 데이터가 검출된다.
- ③ 동시에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“A 씨가 속한 그룹을 선호하는 여성 그룹”도 마찬가지로 검출된다.
- ④ 검출 결과를 활용해 “같은 취향의 남성이 선택한 여성 그룹”에 속해 있으면서 “A 씨가 속한 그룹을 선호하는 여성 그룹”에 속한 자를 시스템에 표시한다.
- ⑤ 이를 통해 A 씨는 성격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방향적인 검색만으로는 열람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새로운 상대와 만날 수 있다.

## 효과

· 여성 회원의 맞선 신청 증가

여성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맞선을 신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나, 빅데이터의 추천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맞선 신청을 하기 쉬워진다.

· 맞선실시율의 향상

일반적으로 1대1 맞선의 신청 상대방이 맞선을 승낙할 확률은 13% 정도이지만 빅데이터가 추천한 상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29%에 달한다.